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 研究

金 美 善*

<目 次>

- | | |
|--------------------------|----------------------|
| I. 序論 | III.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 內容 |
| II.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
形成背景 | IV.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의 特質 |
| | V. 結論 |

<국문 초록>

본 논고는 영남지역 한문학의 유산물 중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 研究」이다. 청매선사는 우리 한문학의 연구범위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볼 때 영남지역의 한문학 내용에서 불가 선시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담양의 지리산 鷲谷寺·靈源寺 등의 사찰에서 수행하며 悟道嶺을 넘나들며 깨달음을 얻었다는 「十二覺詩」의 선시가 현재에도 지리산 오도령을 넘나드는 못사람들에게 吟誦된다는 것은 영남 한문학 유산의 중요한 일맥을 차지하고 있음이 적실하다.

청매 한문학의 특징은, 선종에서 옛 선사들이 제자들을 지도하기 위해 제시한 公案·古則에 대해서 『青梅集』 卷1에서 148가지의 公案을 하나하나 요지를 설명하고 송고시를 남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매가 당나라 선종의 공안 송고시의 맥을 달마의 禪跡을 송고한 法演禪師를 비롯해 선종 제5조 弘忍에서 제6조 慧能의 偈頌을 지어 의발을 전수 받은 것을 公案으로 삼아 송고한 葛廬覃禪師의 송고시, 南泉普願禪師의 「牧牛頌」, 楚雲南禪師가 大梅法常의 공안 내용을 송고한 법맥을 우리나라 고려 무의자 혜심이 계승하고 이를 청매

* 清州大學校 漢文教育科 副教授 / hawoodang@hanmail.net

인오선사가 수용하였다는 의의이다.

이상과 같이 더 이상 뒤임도, 깨달음도, 연음도, 잃음도 없음을 증득한 결과를 禪과 詩가 融合한 禪詩 세계를 영남지역을 토대로 하여 남긴 靑梅禪師를 통하여 접근하여 고찰함에 매우 의미가 있었다. 청매선사 및 영남지역 한문학에 대한 관심을 기대하며 후고를 남겨둔다.

【주제어】 靑梅, 印悟, 頌古, 古則, 靈源寺, 公案

I. 序論

본 논고는 영남지역 한문학의 유산물 중 「靑梅 印悟禪師의 詩文學 研究」이다. 우리 한문학의 연구범위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볼 때에 영남지역의 한문학 내용 또한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남지역의 자연 경관을 선비의 고장이요, 이에 文鄉이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리산을 비롯하여 많은 樓亭, 寺刹이 자리한 이곳을 찾은 발길의 詩囊엔 詩人墨客의 정서가 쌓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남도 樓亭文學의 산실로 바로 담양의 息影亭을 비롯해서 俛仰亭·松江亭·醉歌亭·棲霞堂·環碧堂·瀟灑園 등의 정자가 자리하고 있어, 이러한 누정을 터전으로 하여 많은 문인이 교류하며 남긴 문학의 산물은 우리한문학사에 중차대한 寶庫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누정들은 또한 커다란 품의 산에 안겨 있으니, 바로 智異山이다. 지리산에는 ‘지리10경’으로 노고단의 구름바다, 피아골 단풍, 반야봉의 해지는 경관, 세석 철쭉, 불일폭포, 벽소령의 밝은 달, 연하봉의 仙景, 천왕봉 일출, 섬진강 淸流, 칠선계곡이 있으며, 이 아름다운 10경을 끼고 또한 한국불교의 요람지가 되는 寺刹들이 곳곳에 있다.

지리산 품 속의 사찰들은 華嚴寺·鶯谷寺·泉隱寺·雙磎寺·實相寺·碧松寺를 비롯해 靈源寺이다. 이러한 불교 사찰 승지에 수많은 禪師들

이 雲水行脚을 하였을 터인데 不立文字의 禪跡을 문자로 남겨둔 영남지역 사찰 선사의 선시 세계 또한 우리한문학사에 중요한 일면을 차지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의 한국한문학 연구대상의 관심은 타 지역에 비해 畿湖 지역에 관심이 활발했다고 살펴본다면, 영남지역은 이러한 자연적 문학산실로 풍부한 연구 대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하여 관심이 덜하여 온 듯하다. 그 속에 지리산 품속의 불교 요람지 사찰에서 옛 선승이 남겨놓은 선시를 헤쳐 본다는 것은 더욱 그러하였다.

이에 영남지역 한문학의 유산물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 일은 그 의의를 밝혀내는 일에 일조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토대로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을 고찰하는 연구 범위는 청매 인오선사의 저술 『青梅集』¹⁾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방향으로는 우선 청매선사의 시세계를 고찰하기에 앞서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 形成背景을 청매선사의 시문학 형성에 공안 송고시의 收容 法脈 속에서 검토하기로 하겠다. 이를 토대로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 內容은 ①公案의 頌古, ②悟道의 示法, ③自然의 觀照로 나누어 고찰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난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의 特質로 본 논고를 갈무리 하고자 한다.

II.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 形成背景

青梅 印悟禪師(1546~1621)²⁾는 시기적으로 임진왜란을 겪은 禪僧이며,

1) - 『韓國佛教全書』 第8冊,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編, 1987.
 - 筆寫本, 『青梅集』(刊寫者未詳, 1915寫, 二卷一冊), 東國大學校 圖書館 소장.
 - 筆寫本, 『青梅集』(權相老 寫 원고본), 東國大學校 圖書館 소장.
 - 김화수 역, 『青梅文集』, 토방, 1999.을 본 논고의 저본으로 한다. 위의 자료들을 대조한 결과 필사에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되었는데, 그 전체적 내용은 본고에서는 지면상 후고로 남기고, 본고에서 인용한 원문에 한해서만 상이 점을 밝히기로 한다.

詩僧이다. 청매는 姜沆³⁾의 三從弟⁴⁾로 晉州 姜氏이고, 이름은 印悟, 字는 默契, 青梅는 그의 法號이며 『垂隱集』을 통해 그가 어려서 출가를 하여 영남지역에서 수행한 자취를 볼 수 있다.⁵⁾ 출가 전의 생애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淸虛休靜에게 출가하여 青梅門派를 이루었다. 그의 『青梅集』에는 公案을 시로 형상화한 頌古詩⁶⁾ 148首⁷⁾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청매의 시문학 세계의 형성배경을 공안 송고시의 범맥으로 짚어 보고자 한다.

禪은 看話禪·默照禪으로 구별한다. 간화선은 公案을 參究하여 자기의 근원을 마음에 비추어 득도하는 수행법을 이른다. 목조선은 공안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간화선처럼 전용하지는 않았다. 公案이란 公府案牘의 약칭으로 禪宗에서 수행자에게 깨달음을 열어주기 위해 주는 문제이다. 부처와 祖師가 그 깨달음을 열어 진리를 나타내 보여준 古則이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엄한 것이므로 공안이라 한다. 즉, 公案⁸⁾이란 古德禪師의 言句이다. 禪은 ‘靜慮·思唯修·禪那’라고도 한다. 이 말은 고요히 생각한다는 뜻인데 무엇을 고요히 생각하느냐 하면, 공

-
- 2) 청매의 행적에 대하여 알 수 있는 行狀이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생애에 대하여 고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青梅의 『青梅集』과 姜沆의 『垂隱集』을 통하여 접근해 가기로 한다.
 - 3) 姜沆: 1567(명종 22)~1618(광해군 10). 조선 중기의 문신·의병장. 본관은 진주. 자는 太初, 호는 睡隱·私淑齋. 좌찬성 希孟의 5대손이며, 克儉의 아들이다.
 - 4) 姜沆, 『垂隱集』, 「送僧印悟求族譜於嶺南序」, “浮屠人印悟 吾三從庶弟也”
 - 5) 姜沆, 『垂隱集』, 「送僧印悟求族譜於嶺南序」, “小學佛遊名山 遁入嶺南 得與諸宗遊”
 - 6) 옛사람의 公案을 밝히고 또 한 면으로는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표한한 계송, 불립문자의 선을 불립문자로 不脫不黏의 경지로 言詮에 떨어지지 않는 機境. 선종에서 옛 선사들이 제자들을 지도하기 위해 제시한 公案·古則에 대해서 그 본령을 알리고자 頌으로 간결하게 그 참뜻을 가르친 것. 吟誦하는 사이에 公案을 통해 得道하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 7) 青梅, 『青梅集』 卷1.
 - 8) 公案에는 1천 7백의 格外의 도리가 있고 원리는 모두 같다고 한다.

안을 가지고 그 공간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公案 頌古詩는 唐나라의 양 무제(普通元年 520) 때 인도 수행자인 달마⁹⁾가 바다를 건너 중국 광주에 들어오면서 四句偈를 통하여 禪의 깨달음을 不離文字 하면서 禪修行과 함께 시작되었다.

不立文字 문자로 세울 수 없어서
 教外別傳 경전 밖에 별도로 전하니
 直指人心 곧 발로 마음을 가리켜
 見性成佛 성품을 보고 성불하라.¹⁰⁾

이러한 달마의 禪跡을 法演禪師¹¹⁾는 다음과 같은 송고시로 남겼다.

祖師遺下一隻履 조사가 남기신 한 짝의 신발
 千古萬古播人耳 천만년 사람 귓가에 울리네
 空自肩擔跣足行 부질없이 메고 맨발로 갔으나
 何曾踏着自家底 어찌 일찍 스스로 걸었는가?¹²⁾

이렇게 달마로 시작된 禪偈는 제2조 慧可·제3조 僧璨·제4조 道信을 거쳐 제5조 弘忍에게로 법맥을 이었다. 이때가 바로 당나라의 초기였다. 이러한 선종의 禪(dhyana)은 戒·定·慧 三學을 수행하는 과정의 하나로 중요시 되어 왔다. 모든 경전에서 부처가 법을 설할 때에는 반드시 선정에 든 후에 한다. 즉 선정은 깨달음의 바른 지혜를 낳는 원천이며, 바른 行인 戒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부처가 방대한 경전을 통하

9) 달마대사 : 중국 선종의 初祖(?~528). 南印度 香至國 셋째왕자.

10) 達磨, 『傳法偈』.

11) 法演禪師: 1024 ~ 1104. 湖南省 綿州 出身. 唯識 공부에 몰두하다가 35세에 出家하여 圓照宗本 門下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臨濟禪師의 大脈을 이어 五祖山의 새로운 主人이 되었는데, 이 산은 원래는 黃梅山이었으나 六祖慧能의 五祖弘忍이 머물렀다고 하여 ‘五祖山’이라 했고, 法演이 이곳과 因緣을 맺었기에 ‘五祖法演’이라 일컬었음.

12) 法演, 『頌古聯珠通集』 卷6.

여 설한 연기법의 이치는 이 禪定의 행을 통하지 않고서 체득할 수 없다. 제5조 弘忍에서 제6조 慧能의 偈頌을 지어 의발을 전수 받은 것을 公案으로 삼은 송고시로는 葛廬覃禪師가 다음과 같이 남겼다.

師資緣會有來由 스승의 바탕 인연에 유래 있어
 明鏡非臺語暗投 명경은 대 아니라 가만 말했네
 壞却少林窮活計 소림사 무너져 살 계책 궁하여
 櫓聲搖月過滄洲 노 소리 달 흔들며 창주 지나네.¹³⁾

위의 계송 기구에서 5조 홍인과 6조 혜능이 사제로 만나 인연이 있음을 말하였다. 승구는 홍인선사가 의발을 전해줄 제자를 알아차리게 계송으로 혜능이 남긴, “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¹⁴⁾를 들어 혜능의 깨달음을 홍인이 알아차린 일화를 송고하였다. 계송의 후반부에서, 노 젓는 소리 달을 흔들며 창주를 지난다는 것은 이미 달마의 禪이 홍인선사에게로 전법되어 전파되리라 설하는 내용으로 법맥이 이어져 내려왔다.

이후 南泉普願禪師¹⁵⁾의 「牧牛頌」¹⁶⁾의 頌古詩가 선사들의 수행 길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후대 頌古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이 되었다. 그 내용은 소를 치는 동자가 잃어버린 소를 찾아 떠났다가 돌아오는 만행의 과정을 선승이 自性を 탐구하고, 마음을 닦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비유한 公案이다. 이에 목동의 만행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소를 찾아 나서는 「尋牛」와 마지막 단계 「入塵垂手」은 다음과 같다.

13) 葛廬覃 『頌古聯珠通集』, 卷7.

14) 『六祖壇經』

15) 南泉普願禪師: 748~834. 馬祖道一의 弟子요 趙州從諗의 스승. 소를 기르며 山中에서 修行한 데서 由來하였고 당시에는 牧牛의 공안이 총림에 널리 流行하였다.

16) 尋牛·見跡·見牛·得牛·牧牛·騎牛歸家·忘牛在人·人牛俱忘·返本還源·入塵垂手の 10단계로 동자가 심우를 하는 만행을 선화로 그려낸 것에 붙인 계송.

茫茫撥草去追尋 망망한 풀 숲 헤치며 따라가 찾자니
 水闊山遙路更心 물 넓고 산 먼데 길은 더욱이 험하네
 力盡神疲無處覓 힘 다하고 정신 지쳐 찾을 길 없는데
 但聞楓樹晚蟬吟 단풍나무서 늦 매미 소리가 들려오네.¹⁷⁾

露胸跣足入塵來 가슴을 드러내고 맨발로 자리에 들어서니
 抹土塗灰笑滿顛 흙먼지 더러운 곳이나 웃음 얼굴 가득하네
 不用神仙眞秘訣 이는 신선의 참된 비결을 쓴 것이 아닌데
 直教枯木放花開 바로 고목으로 하여금 꽃을 피게 하는구나.¹⁸⁾

선승이 본성을 찾고 닦아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목동이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해 묘사한 것으로, 목동의 만행 과정을 송고한 시이다. 심우에 비유된 소는 선승이 찾고자 하는 본성이요, 목동은 수행자인 선승에 비유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공안의 송고시의 범맥은 매실이 익었다는 大梅法常禪師¹⁹⁾의 공안으로 이어진다. ‘매실이 익었구나.’라는 공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적은 大梅가 산에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한 스님을 보내어 물었다. “스님이 마조선사를 친견하였을 때 무엇을 얻고서 이 산에 주석한 것입니까?” “마조스님은 나에게 마음이 부처라 말해 주었다. 나는 곧 그 속에 머물고 있다.” “마조스님의 요사이의 불법이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요사이엔 또한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라 말합니다.” “이 늙은이가 사람들을 현혹시켜 깨칠 날이 없다.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 라는 것은 그에게 맡겨 두고 나는 오로지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할 것이다.” 그 스님이 돌아가 마조에게 이 말을 전하자, 마조는 “대중들이여! 매실이 익었구나.”라고 하였다.²⁰⁾

17) 李喜益 註解, 『禪宗四部錄·十牛圖』(寶蓮閣刊), 「尋牛」, 1972.

18) 李喜益 註解, 『禪宗四部錄』, 「入塵垂手」.

19) 大梅法常: 785~805. 唐代 南岳下 襄陽 사람. 幼年부터 荊州 玉泉寺에서 修學한 후 冠年에 受具하고 經論을 연구하다가 禪에 뜻을 두고는 馬祖下에서 깨달음을 얻다. 736년(貞元 12) 四明 남쪽 梅子眞의 은거처였던 大梅山에 거주했다.

라고 하여 ‘매실이 익었다.’는 공안은 마침내 후대 선사들이 사제 간 또는 도반들이 수행하는 길에서 각자의 선의 견해 또는 제자 도반의 道의 證得을 짐작해 보는 공안이 되어 계송으로도 많이 문자화 하였으니, 楚雲南禪師가 大梅法常의 공안 내용을 송고한 시이다.

荷衣松食住深雲 연잎옷 솔밥으로 구름깊이 머무니
蓋是當年錯見人 대개 이 당시 사람 잘못 봤으리라.
埋沒一生心卽佛 평생 마음이 곧 부처란 말에 묻혀
萬年千載不成塵 천년 만년토록 티끌되지 않는구나.²¹⁾

라고 하여 계송의 전반부에서는 大梅禪師가 도를 깨친 후의 保護任持²²⁾의 漸修를 말하는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대매선사가 ‘心卽佛’이라는 스승 馬祖禪師의 話頭를一念을 놓치지 않고 득도하여,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의 경지를 증득한 결과를 노래하였다. 이러한 중국 선종의 공안 송고시를 우리나라 고려 無衣子 慧謚禪師가 수용²³⁾하

20) 杜松柏 著, 朴浣植·孫大覺 譯, 『禪과 詩』, 민족사, 1999, p.149, “大寂聞師住山 乃令一僧人到問云 和尚見馬師 得箇什麼? 便住此山 師云 馬師向我道 卽心是佛 我便向這裏住 僧云 馬師近日佛法又別 師云 作麼生別? 僧云 近日又道非心非佛 師云 這老漢惑亂人未有了日 任汝非心非佛 我只管卽心卽佛 其僧廻 舉似馬祖 祖云 大衆 大梅熟也.”

21) 『宗鑑法林』 卷12.

22) 保護任持: 見性한 이가 그 境地를 잘 보호해 지켜 가지는 것. 保任 또는 菩提廻向이라고도 함.

23) 中國 佛家 公案의 頌古詩 흐름이 고려 眞覺國師 慧謚에게로 이어져 韓國 佛家 漢詩가 본격적으로 形成하게 되었다. 韓國 佛家 禪詩의 대표적 詩僧과 시세계에 드러난 美意識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大覺義天(1055~1101) 無爲自然→眞覺慧謚(1178~1234) 流麗禪→圓鑑沖止(1226~1292) 禪情→白雲景閑(1298~1374) 得道→太古普愚(1301~1382) 長篇詩歌→懶翁惠勤(1320~1376) 臨濟風禪→涵虛得通(1376~1433) 淸淨→碧松智嚴(1464~1534) 禪智→虛應普雨(1515~1565) 懷古→淸虛休靜(1520~1604) 山情→靜觀一禪(1533~1608) 道家的禪→浮休善修(1543~1615) 禪淨→青梅印悟(1548~1623) 公案→奇巖法堅(1552~1634) 直觀→逍遙太能(1562~1649) 自在→中觀海眼(1567~?) 平常禪

였다. 혜심의 송고시 「四牧」 중에 其一을 들어보면,

胡亂溪東溪西 시내 이쪽저쪽을 어지럽히고서
 遙懸山上山下 멀리는 산 위아래를 돌아다니니
 勤勤緊把繩頭 겨우 겨우 고삐 단단히 잡아서
 切忌犯人苗稼 남의 벼 모를 범하지 않게 하네.²⁴⁾

라고 하였다. 당나라 南泉普願禪師의 「牧牛頌」의 公案 頌古詩를 혜심이 수용하여 혜심선사도 수행의 과정을 牧牛에 비유하였다. 南泉普願禪師는 牧牛의 과정을 10단계로 頌하였고, 혜심선사는 4단계로 송하였다. 혜심의 「四牧」에서 첫 번째 단계는, 수행자로 비유하면 疑情을 일으켜 발심을 하는 초기 단계로써, 간신히 고삐를 잡은 득우의 상태에서 소를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소가 어느 때는 계곡 이쪽 또는 저쪽에 있기도 하고, 높은 산 위아래에 있기도 하는 상태이다. 수행자가 깨달음의 본체를 발견하긴 했지만, 그간의 三毒 貪·嗔·痴의 짙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계로 번뇌 망상과 업장을 녹이기 위해 용맹정진 해야 하는 때이다. 고삐를 단단히 잡아 남의 논에 벼의 모가 나 있는 것을 범하지 않게 하듯 수행자가 어렵게 잡은 수행의 마음을 놓쳐 버리면, 다시 잡기 어렵기에 대용맹정진이 따라야 하는 시점을 말하였다. 이러한 혜심의 송고시의 범택은 淸虛休靜에게로 이어져, 청매인오의 송고시를 형성하게 하였다. 여기까지의 청매선사의 시문학 형성 배경을 토대로 다음에서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 內容을 ①公案의 頌古, ②悟道の 示法,

→雲谷冲徽(?~1613) 仙家風→詠月淸學(1570~1654) 訓古風→鞭羊彥機(1581~1644)
 山水→翠微守初(1590~1668) 禪風→虛白明照(1593~1661) 絕唱→白谷處能(1617~1680)
 山水自然→月峰策憲(1624~?) 無位真人→栢庵性聰(1631~1700) 耽味禪→雪巖秋鵬(1651~1706) 無常→龍潭槌冠(1700~1762) 照顧脚下→草衣意尙(1786~1866) 禪茶
 →梵海覺岸(1820~1896) 眞空妙有→石顛映湖(1870~1948) 詩禪一揆→萬海龍雲(1879~1944). (金美善, 『佛家禪詩의 美意識』, 『東方漢文學』 49집, 동방한문학회, 2011. 참조.)

24) 慧謙, 『無衣子詩集』, 「四牧」.

③自然의 觀照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Ⅲ.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 內容

1. 公案의 頌古

공안 송고시는 선종에서 옛 선사들이 제자들을 지도하기 위해 제시한 公案·古則에 대해서 그 본령을 알리고자 頌으로 간결하게 그 참뜻을 지은 것이다. 그것을 吟誦하는 사이에 公案의 내용을 통해 得道하게 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청매선사의 『青梅集』 卷1에는 이러한 공안 송고시가 148首 실려 있다. 먼저 「三祖風恙」이다.

因泥而倒從泥起	진흙인해 넘어져선 진흙 속서 일어나니
病藥由來在一身	병과 약이 말미암는 것도 한 몸에 있네
嶺上浮雲風掃盡	고개마루 뜬구름 바람이 다 쓸어버리니
蒼蒼落落更無塵	푸르고 우뚝 솟아 다시 더 티끌이 없네. ²⁵⁾

중국 선종 三祖 僧璨禪師²⁶⁾가 二祖 慧可禪師에게 법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공안이 ‘三祖風恙’이다. 청매선사는 자신의 송고시에 해당하는 公案의 내용을 설명해 놓았다.

스님[三祖 僧璨]이 二祖 慧可禪師에게 묻기를 “제자의 몸에 風恙이 걸려 있는데, 스승께 빌어 죄를 사죄 받고자 합니다.” 二祖가 말하기를 “죄를 가져 오너라. 너에게 참회하게 하여 주리라”하니 스님이 말하길 “죄를 찾아보아도 마침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二祖가 “그대에게 죄를 참회하여 주는 것을 마쳤느

25) 青梅, 『青梅集』 卷1, 「三祖風恙」.

26) 僧璨: ?~606. 수나라의 양제 대업 2년[서기 606년] 10월 5일에 입적. 당나라 현종 황제가 鑑智禪師라고 시호를 하사. 어느 날 慧可禪師에게 40이 넘어 서 찾아가 자신은 風病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求道를 함.

나라.”하였다.²⁷⁾

風恙이라고 하면 지금의 문둥병 환자를 말한다. 승찬은 자신의 죄를 참회해 달라 청하여 혜가가 죄를 가져오라는 말에 모든 본성이 안과 밖과 중간 그 어디에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스스로 지어내는 것임을 깨치고 마음이 부처이며, 마음이 불법임을 득도한다. 이에 부처와 법은不二로 귀결이 되어짐을 깨달아 혜가대사는 그가 법의 그릇임을 깊이 인정하여 忍可를 얻게 된다. 청매는 ‘三祖風恙’의 이러한 공안을 참구하여 자신대로의 답을 얻어 송고시를 남겼다.

시의 전반부에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는 緣起法 속에서, 병과 약이 말미암는 것도 한 몸에 있다는 것을 ‘三祖風恙’의 공안을 통해 알아차린다. 죄업이란 자체의 성품이 없는데 다만 사람이 마음으로 만들어 낸 것이고, 그 마음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病과 藥이 하나이기에 ‘一切唯心造’인 것이다. 시의 후반부에서 고개 마루의 뜬 구름도 바람이 쓸어버리니, 푸르고 우뚝한 실체에 티끌 한 점 없음을 알아차린다. 僧瓚禪師의 병이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것처럼 그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죄업이란 것도 병이라는 것도 무애한 경지에 따라 텅 비게 되어 짐을 청매선사는 송고 하였다. 다음은 「梅子已熟」이다.

積年梅子久荒涼	여러 해에 매실이 오래 거칠터니만
霜落金風撒蒂黃	서리 찬바람에 누런 꼭지 떨어지네
強被龐翁百雜碎	억지로 방옹은 백개를 섞어 부수고
從教方外播清香	하여금 밖으로 맑은 향 번지게 하네. ²⁸⁾

「梅子已熟」의 공안 송고시는 大梅法常禪師가 수행은 마음을 깨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馬祖禪師에게 “부처란 무엇입니까?”

27) 青梅, 『青梅集』 卷1, “師問二祖曰 弟子身纏風恙 乞師懺罪 祖曰罪將來 與汝懺 師曰 覓罪了 不可得 祖曰 懺罪竟云云”

28) 青梅, 『青梅集』 卷1, 「梅子已熟」.

하고 간절히 묻자 “마음이 곧 부처[卽心卽佛]”라는 대답을 들으며, 크게 깨달은 과정에서 나온 공안이다. 청매선사의 「梅子已熟」에 대한 설명을 보면,

마조대사가 항상 말하기를 “마음이 곧 부처이다.”라고 하였는데, 선사가 나중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한 말을 듣고 말하길, “이 늙은이가 사람들을 현혹시켜 깨칠 날이 없다. 나는 오로지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니, 마조가 듣고 말하길 “대중들이여! 매실이 익었구나.”라고 하였다.²⁹⁾

대매선사는 깨달음을 얻은 후 大梅山으로 들어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마음을 찾은 대매는 이 마음을 살피고 쓸 줄 알면, 그 자체가 수행이지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이후는 어떠한 경계에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자, 마조선사께서 ‘梅子已熟’이라고 말한 공안이 있게 되었다.

이를 두고 청매선사는 시의 전반부에서 여러 해 매실이 거칠더니, 서리 내리고 찬바람 부니 누런 꼭지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때가 되어 법이 무르익은 경지를 말한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言句에 떨어지지 않은 수행을 한 龐居士³⁰⁾의 고사를 들어서 매실이 익으면 꼭지가 떨어지듯 법이 무르익으면 저절로 法香이 사방으로 번져 감을 설하였다. 다음은 「古靈誨師」의 공안 송고시이다.

風來水面皺初發	물위 바람 부니 물결 처음 일고
鳥去沙腮篆字生	새 날아가니 모래에 글자 생기네
好是回頭局破後	이에 고개 돌려보니 판 깨진 후라
空携欄柯下山行	부질없이 난가를 들고 하산을 하네. ³¹⁾

29) 青梅, 『青梅集』 卷1, “馬大師常曰 卽心卽佛 師後聞非心非佛曰 這老漢惑亂人未有了日 我卽心卽佛 祖聞曰 大衆 大梅熟也.”

30) 龐居士: ?~808. 維摩의 化身이라고 불리우며 方蘊이라는 본명 대신 ‘방거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居士禪을 대표함.

31) 青梅, 『青梅集』 卷1, 「古靈誨師」.

‘古靈誨師’ 공안은 당나라 때의 고승 古靈神贊禪師와 그의 스승 戒賢禪師의 이야기다. 고령선사는 看經에 집착하는 스승을 잠시 떠나 행각을 하다가, 百杖禪師를 만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다. 그 뒤 만행을 하다가 스승이 계신 本寺에 돌아왔는데 은사스님은 아직도 간경에 집착하고 있었기에 다음과 같은 공안의 일화가 전해온다.

본사께서 경전을 보고 계실 때에 창호지에 벌이 부딪쳐 창문 안으로 들어 왔다. 고령스님이 말하길 “열려있는 문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창호지를 뚫고 있으니 어리석음이 크도다.”라고 하니 본사께서 책을 덮으셨다.³²⁾

고령선사가 看經을 중요시 여기는 은사스님을 잠시 떠나 백장선사 밑에서 정진을 하다 돌아온 후 어느 날 벌이 창문 안으로 날아 들어와서는 나갈 곳을 찾지 못하고 창호지를 뚫고 나가려 몸을 부딪치는 모습을 보고, 고령은 “空門不肯出 投窓也多痴”라고 하였다. 들어 온 본래의 열려 있는 문으로 나가면 되는데, 창호지를 뚫고 나가려는 벌의 어리석음이 바로 몇 십 년 看經으로 종잇장을 뚫어 깨달음을 얻어 보겠다고 앉아 있는 선사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라는 一針이다. 이에 계현선사는 책을 덮었다고 하는데서 나온 공안이다.

청매는 ‘古靈誨師’의 송고에서, 수면 위에 바람이 불어오니 물결이 일렁이고 새가 모래 위에 앉았다가 날아가니, 새의 발자욱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내 그 물결은 흔들리고, 새의 발자욱은 이미 흩어져 없어진 것에 집착 하느라 부질없이 헛된 시간만 보낸다고 하였다. 자칫 수행의 본질을 모르면, 시간을 허비한다는 경계이다. 종잇장을 뚫어지게 바라본다고 도를 터득하는 것은 아님을 말한 것이다. 깨달음은 마음에 달린 것이지 경전에 있는 것도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상과 같이 청매선사의

32) 青梅, 『青梅集』 卷1, “本師轉經時 紙蜂投窓 師云空門不肯出 投窓也多痴 本師置卷”

공안 송고시를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悟道の 示法 세계를 보기로 한다.

2. 悟道の 示法

종래로 선가에서는 ‘문자를 세우지 말라’ 하여 ‘不立文字’라고 하였으나, 悟道の 경지를 示法하기 위해서는 不離文字를 할 수 밖에 없었으니, 선가의 문자는 言句에 집착되기보다는 示法을 위한 방편이라 하겠다. 不立文字의 禪의 宗旨를 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文字를 통하지 않고는 전할 수 없는 일이다. 달을 보라고 하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들어야 하는 경우인 것이다. 이에 禪家에서 文字는 문자로 말할 수 없는 경지를 말하기 위한 절대적 도구로 쓰였고, 단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는 것이지 손가락 끝을 본다면, 그것은 本體의 지혜를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말로 할 수 없는 悟道の 경지를 示法한 淸매의 오도시를 본다. 먼저 「置卷」이다.

學本爲修道	학문은 본래 도를 닦기 위함이요
道本爲全生	도는 본래 온전히 살기 위함이니
全生安樂國	온전히 살아 안락국을 이루었다면
何必轉千經	어찌 꼭 경전 읽을 필요 있겠는가? ³³⁾

起句에서 淸매는 학문의 근본은 도를 닦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承句에서는 앞에서 말한 학문이 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한, 그 도의 근본은 또한, 온전히 살기 위함이라 설하며, 轉句에서 이미 ‘온전히 살고 있다면[全生]’ 어찌 꼭 八萬大藏經의 言說이 따로 필요하겠는가?라는 悟道の 경지를 示法하였다. 文字와 言句에 갇히거나 매달림을 경계한 시법시라 하겠다. 다음은 「示求法人」이다.

33) 青梅, 『青梅集』 卷2, 「置卷」.

一海衆魚遊 온 바다에 못 고기 노니는데
 各有一大海 각각에게 온통 바다가 있네
 海無分別心 바다는 분별하는 맘 없나니
 諸佛法如是 제불의 법도 이와 같으리라.³⁴⁾

법을 구하는 禪者에게 주는 답이다. 시의 전반부에서 넓은 바다에 온갖 물고기가 노닌다고 비유하며, 그렇지만 각각의 물고기에게 바다 전체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물고기들마다 어디든 헤엄쳐 다다르지 못할 곳 없으니, 달리 말하면 물고기 숫자만큼의 바다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즉 重重無盡의 경지인 것이다. 시의 후반부에서 이러한 못 바다는 모든 물고기에게 똑같은 바다를 열어주는 것이다. 큰 물고기에게 바다가 늘어나고 작은 물고기에게 바다가 줄어들고 하는 법 없이, 즉, ‘多即一·一即多’의 이치이다. 바로 있는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바로 여기가 깨침의 자리인 것이니 無分別智이다. 청매선사는 법을 구하는 선자에게 무분별지를 시법하였다. 다음은 「十二覺詩」³⁵⁾이다.

覺非覺非覺 ‘覺’ ‘非覺’이다라는 것은 깨침이 아니요
 覺無覺覺覺 참된 깨침은 ‘無覺’을 깨닫는 것이 ‘覺’이네.
 覺覺非覺覺 ‘覺’과 ‘非覺’이 하나임을 깨닫는 이 ‘覺’을
 豈獨名眞覺 어찌 꼭 참된 깨침이라 이름할 수 있을까?³⁶⁾

悟道嶺³⁷⁾은 서산대사 법을 계승한 법제자인 청매선사가 함양과 마천의 엄천사 도솔암에서 수도를 할 때, 悟道嶺를 수없이 오르내리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전한다. 작품의 제목에서 보듯이

34) 青梅, 『青梅集』 卷2, 「示求法人」.

35) 「十二覺詩」는 현재 경남 함양군 휴천면 오도재에 비석에 새겨 세워져 있는데 「十二覺詩」라고 誤記가 되어 있음을 밝혀 둔다.

36) 青梅, 『青梅集』 卷2, 「十二覺詩」.

37) 悟道嶺은 해발 773m 함양읍에서 지리산으로 들어서는 고개. 현재 여기에는 청매의 「十二覺詩」를 새긴 詩碑가 조성되어 있다.

본문이 오언절구 20字에서 ‘覺’字가 12개 들어 있다.³⁸⁾ 起句에서 ‘覺’이다, ‘非覺’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깨침이 아니라고 청매는 ‘覺’의 경지를 말했다. 깨달음에 깨달은 바가 있다면, 물론 깨달음이 아니지만 깨달은 바가 없을지라도 능히 깨달을 것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역시 참다운 깨달음이 아닌 것이다. ‘覺’이다, ‘非覺’이다라는 ‘覺’은 깨달음이 아닌 것이다. 勝句의 그렇다면 참된 깨침은 ‘無覺’을 깨닫는 것, 즉 깨달을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覺’이라 할 수 있다고 하며, 轉句에서 ‘覺’과 ‘非覺’이 하나임을 깨닫는 모든 분별심에서 떠나는 이것이 ‘覺’이라 하였다. 結句로 와서는 그렇다면 ‘覺’과 ‘非覺’의 분별심을 떠나 ‘覺’을 했다면, 그것도 또 ‘覺’이라고 이름한다면 ‘眞覺’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며, 결국은 불립문자의 言外, 格外의 도리를 문자화하며 불법이 ‘不二’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둘이 아니면, 하나라면, 하나란 또 그 무엇인가? 청매선사의 12개의 ‘覺’字가 무한한 眞空妙有의 경계에 있는 듯하다. 다음은 「看到知知篇」이다.

若以知知知	만약 ‘知’로써 ‘知’라고만 안다고 하면은
如以手掬空	마치 손으로써 허공을 잡는 것과 같네
知但自知己	다만 자기를 아는 것을 ‘知’라고 안다면
無知更知知	‘知’가 없는 것이 다시 ‘知’라는 것 알리라. ³⁹⁾

청매선사는 만약 ‘知’로써 ‘知’라고만 안다고 하면, 마치 손으로써 허공을 잡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선종의 오묘한 뜻을 담고 있는 ‘인연 없는 참 지혜[無緣眞智]’를 나타내는 것이 참다운 ‘知’요, 안다는 본심을 드러내면, 곧 손으로 허공을 잡는 것과 같은 손에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는

38) 이 작품은 청매선사에게 직접 듣지 않는 한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작품이라 사료된다. 12개의 ‘覺’字를 품사를 어떻게 보느냐 또는 어떻게 구두를 찍어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견해가 달라질 수 있지만 궁극은 하나에 이르는 길이라 짐작된다.

39) 青梅, 『青梅集』卷2, 「看到知知篇」.

망념과 같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만 자기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것을 ‘知’라고 안다면, ‘知’라는 자체가 없는 모름지기 주관(能)과 객관(所)이 평등하여 한결같이 관조함을 잃지 않는 ‘무지의 지혜[無知之知]’를 알리라고 시범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매선사의 오도 시범시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自然의 觀照를 詩化한 청매의 시세계이다.

3. 自然의 觀照

觀照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내용으로 불가 수행의 덕목으로 삼는 하나이다.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수행의 관법은 바로 자신의 행동 혹은 생각 등을 관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살펴 수행하는 것이다. 불가 수행의 관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을 관하던 자신의 그 순간의 識 또는 行爲를 통해 참 나를 찾는 것이 수행이다. 이에 청매선사의 자연 속에서 觀照하는 수행의 자취가 담겨 있는 「宿西樓」이다.

樓在清江上	누대가 맑은 물 강가에 있어서
下瞰雙眼碧	아래를 바라보니 두 눈이 푸르네
頽然臥月明	힘없이 밝은 달빛 속에 누워보니
天地無寬窄	천지간은 넓지도 좁지도 않아라. ⁴⁰⁾

시의 전반부에서는 자연의 주변정경이 잘 드러나 있어 前景에 드러난 배경이 눈에 선하다. 청매선사가 西樓에서 유숙을 하자니, 누대는 맑은 강가에 있어서 높은 누대에서 아래 물을 내려다 觀照하니, 물도 보는 이의 눈도 하나가 되어 푸르기만 하다. 시의 후반부에서 이러한 청정 고요한 누대에서 밝은 달빛 속 달빛을 베개 삼아 누워보자니, 천지는 좁지도 넓지도 않은 無碍를 증득한 경지를 술회하였다. 다음은 「春日」이다.

40) 青梅, 『青梅集』 卷2, 「宿西樓」.

友也江村乞食去 벗과 강촌에서 탁발하며 지냈는데
 知廚童子煮松茶 부엌서 동자가 松茶를 달임 알고서
 出門驚見春歸盡 문 나서자 봄 다 지남 놀라 보자니
 風打桃源欲落花 바람이 도원에 불어 꽃잎 지려하네.⁴¹⁾

자연 속 봄날 청매의 觀物意識이다. 벗과 강촌에서 탁발을 하며 지내자니, 童子의 차 달이는 松風이 들려온다. 이미 벌써 穀雨 절기가 지나며 차 잎을 따낸 穀雨茶인가 보다. 차 달이는 소리에 문득 무의식에 들어온 觀物은 이미 봄이 다 지나고, 무릉도원의 꽃잎도 바람에 속절없이 떨어지는 때, 바로 시절인연은 그때에 있었다. 다음은 「山居」이다.

山間勝槩多 산 속에는 좋은 일이 아주 많아
 准擬人間樂 속세의 즐거움에 비길 만 하다네
 松風琴瑟聲 솔바람소리는 비파 소리와 같고
 楓林綺羅色 단풍 숲은 고운 비단 색 같다네
 獨坐足見聞 홀로 앉아 보고 듣기 충분하니
 不要知得失 득실 아는 것 바라지 않는다네
 人來慰寂寥 사람이 와서 적료함 위로하면
 我笑渠齷齪 나는 그 착착함에 웃음나리라.⁴²⁾

청매선사의 산 속 살림이다. 이곳이 바로 청매선사가 수행 정진한 智異山이었으리라 짐작해 본다. 노고단의 구름바다, 피아골 단풍, 반야봉의 해지는 경관, 세석 철쭉, 불일폭포, 벽소령의 밝은 달, 연하봉 仙景, 천왕봉 일출, 섬진강 清流, 칠선계곡의 아름다운 10경을 끼고 있는 지리산 품속의 사찰 鷲谷寺·靈源寺 등에서 청매는 정진을 하였기에 산속 자연에서 관조의 혜안이 깊고 길었다.

시의 전반부에서 산속의 산림은 세속의 즐거움 못지않게 아주 많다고

41) 青梅, 『青梅集』 卷2, 「春日」.

42) 青梅, 『青梅集』 卷2, 「山居」.

하였다. 솔바람 소리는 비파소리와도 같고, 단풍 숲은 고운 비단과 같으니, 세속의 어떠한 즐거움에 비기겠는가? 비파 소리 같은 솔바람 소리는 더 이상의 소리를 구할게 없게 하고, 고운 비단 같은 가을 단풍 숲은 더 이상 치장할 일이 따로 없게 한다.

시의 후반부에서 이러한 산중에서 홀로 앉아, 보고 듣기에 살림이 충분하니, 더 이상의 얻을 것 바라지 않고, 더 이상 잃을 것 염려 없는 탈속한 살림이다. 이러한 나의 삶에 그 누군가 찾아와 위로해 준다면, 나는 그의 위로하는 세속 말에 절로 웃음이 날 것 같다는 산중 수행의 삶을 自照하는 걸림 없는 禪氣가 가득하다. 이상과 같이 青梅禪師의 詩文學 內容을 ①公案의 頌古, ②悟道の 示法, ③自然의 觀照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IV.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的 特質

청매선사는 우리 한문학의 연구범위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볼 때에 영남지역의 한문학 내용에서 불가 선시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담양의 지리산 鶯谷寺·靈源寺 등의 사찰에서 수행하며 悟道嶺를 넘나들며 깨달음을 얻었다는 「十二覺詩」의 선시가 현재에도 지리산 오도령을 넘나드는 못사람들에게 吟誦된다는 것은 영남 한문학 유산의 중요한 일맥을 차지하고 있음이 적실하다.

특히 청매 한문학의 특질은, 선종에서 옛 선사들이 제자들을 지도하기 위해 제시한 公案·古則에 대해서 『青梅集』 卷1에서 148가지의 公案을 하나하나 요지를 설명하고 송고시를 남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매가 당나라 선종의 공안 송고시의 맥을 달마대사 禪跡을 송고한 法演禪師를 비롯해 선종 제5조 弘忍에서 제6조 慧能의 偈頌을 지어 의발을 전수 받은 것을 公案으로 삼아 송고한 葛廬覃禪師의 송고시, 南泉普願禪師의 「牧牛頌」, 楚雲南禪師가 大梅法常의 공안 내용을 송고한 범맥을

우리나라 고려 무의자 혜심이 계승하고 이를 청매인오선사가 수용하였다는 의의이다. 『青梅集』 卷1에서 148首의 公案 송고시를 남겨 후대 선사의 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청매 시문학의 높은 가치로 ‘禪教一致·禪詩一如’를 이룬 看話禪의 꽃을 송고시로 피워냈다. 이러한 청매의 선시에 드러난 禪氣의 특징은 그의 「十無益」에 그대로 설해 놓았다.

心不返照	마음을 반조하지 않으면
看經無益	경전을 봐도 무익함이요
不達性空	자성의 공에 못 이르면
坐禪無益	좌선을 해도 무익함이요
輕因望果	원인을 경솔히 한 결과
求道無益	도를 구하는데 무익이요
不信正法	바른 법 믿지 아니하면
苦行無益	고행 한다 해도 무익이요
不折我慢	아만을 꺾지 못한다면은
學法無益	법을 배운대도 무익이요
內無寶 ⁴³⁾ 德	속에 보배로운 덕 없으면
外儀無益	밖의 거동도 무익함이요
欠人師德	스승 노릇할 덕이 없으면
濟衆無益	중생제도도 무익함이요
心非信實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巧言無益	말을 잘해도 무익함이요
一生乖角	일생을 괴각만 부린다면
處衆無益	대중에 처해도 무익이요
滿腹無識	배에 가득 무식하다면
憍慢無益	교만을 부림이 무익하다. ⁴⁴⁾

43) 『韓國佛教全書』 第8冊, 筆寫本 『青梅集』과 權相老 寫·김화수 역, 『青梅文集』에는 ‘實’字로 되어있는데, 筆寫本 『青梅集』, 刊寫者未詳, 1915寫에는 ‘寶’字로 기록되어 있다. 년대가 가장 앞서는 필사본에서 후대에 옮겨 필사되는 과정에서 誤記가 되었으리라 짐작한다.

44) 青梅, 『青梅集』 卷2, 「十無益」.

청매선사의 선기는 근본을 알아 근본에 철저하면, 얻고자 하는 바가 저절로 얻게 되는 경지를 체득하여 이를 「十無益」으로 남겼다. 그의 悟道の 示法詩를 남긴 것이 또한 청매시의 특질이라고 하겠으며 또한 ‘平常心是道’의 수행을 자연 속에서 관조하며 많은 선시를 남겼다. 이상과 같이 더 이상 닦음도, 깨달음도, 얻음도, 잃음도 없음을 증득한 결과를 禪과 詩가 融合한 禪詩 세계를 영남지역을 토대로 하여 남긴 青梅禪師를 통하여 접근하여 고찰함에 매우 의미가 있었다.

V. 結論

이상과 같이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한문학의 연구범위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볼 때 영남지역의 한문학 내용에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 속 지리산을 비롯하여 많은 寺刹이 자리한 이곳에서 파생된 青梅 印悟禪師의 시문학 세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문제제기하며, 그의 문학적 형성배경과 내용을 통하여 青梅 印悟禪師의 시문학적 특질을 연구 범위로 서론에서 제시하였다. 이에 영남지역 한문학의 유산물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 일은 그 의의를 밝혀내는 일에 일조가 되리라는 연구목적에 토대로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 研究를 고찰하는 연구 범위는 청매 인오선사의 저술 『青梅集』을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방향으로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 形成背景을 공안 송고시의 收容 法脈 속에서 검토하였다. 이에 부처와 祖師가 그 깨달음을 열어 진리를 나타내 보여준 古則을 토대로 수행한 青梅 印悟禪師의 수행이 不立文字의 詩文學 세계로 형성 되어진 맥락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青梅 印悟禪師의 詩文學 內容을 ①公案의 頌古, ②悟道の 示法, ③自然의 觀照로 세분하여 고찰하였다. ①公案의 頌古에서는

선종에서 옛 선사들이 제자들을 지도하기 위해 제시한 公案·古則에 대해서 그 본령을 알리고자 頌으로 간결하게 그 참뜻을 지은 것으로 청매 인오선사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吟誦하는 사이에 公案의 내용을 통해 得道하게 하는 것을 근본 목적하여 남겼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②悟道の 示法에서는 禪家에서 文字는 문자로 말할 수 없는 경지를 말하기 위한 절대적 도구로 쓰였고, 단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는 것이지 손가락 끝을 본다면, 그것은 本體의 지혜를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말로 할 수 없는 悟道の 경지를 示法化하였다. ③自然의 觀照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살펴 수행한 내용이다. 청매 인오선사가 자연 속에서 觀照하는 자신의 그 순간의 識 또는 行爲를 통해 참 나를 찾는 수행을 그의 禪詩 속에 남겨 놓았다.

특히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 靑梅 印悟禪師의 시문학의 특질을 찾아보자면, 선종에서 옛 선사들이 제자들을 지도하기 위해 제시한 公案·古則에 대해서 『靑梅集』 卷1에서 148가지의 公案을 하나하나 요지를 설명하고 송고시를 남겼다는 것이 한국 불교 선시사에서 가장 큰 특질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靑梅 印悟禪師의 禪詩 및 영남지역 한문학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대하며 여지를 후고에 남겨둔다.

<參考 文獻>

- 『金剛經』 『頌古聯珠通集』
『東國李相國集』
浮休堂, 『浮休堂大師集』.
逍 遙, 『逍遙堂集』.
慥 冠, 『龍潭集』.
志 安, 『喚惺詩集』.
處 能, 『大覺登階集』.
清 虛, 『清虛堂集』.
最 訥, 『默庵大師詩草』.
秋 鵬, 『雪巖雜著』.
取 如, 『括虛集』.
太 古, 『太古和尚語錄』.
捌 關, 『振虛集』.
涵 虛, 『涵虛堂得通和尚語錄』.
김상일, 「청매 인오선사의 생애와 임진왜란 관련시에 대하여」, 『불교학보』
62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12.
석지현, 『한시감상사전』, 민족사, 1997.
선림고경총서12, 『臨濟錄』, 장경각, 1989.
志安 譯註, 『往五天竺國傳』, 불광출판사, 2010.
杜松栢, 『禪學與唐宋詩學』,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民國65.
——, 『禪與詩』, 臺北: 弘道書局, 民國65.
——, 『禪詩三百首』,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民國70.
柳田聖山, 『禪語錄』, 中央公論社, 昭和49.
石破洋, 『佛教文學研究論攷』, 興英文化社, 平成7.
松本史郎, 『禪思想の批判的研究』, 大藏出版, 1994.
伊藤博之外 篇, 『佛教文學講座』, 勉誠社, 平成6.
陳 香, 『禪詩六百首』, 民國74.

Abstract

A Study on Poetry Literature of Cheongmae Ino Zen-master(青梅 印悟禪師)
/ Kim Mi Seon*

This article is The Study on Poetry Literature of Cheongmae Ino Zen-master[青梅 印悟禪師] among the Chinese literature heritage in the southeastern part of Korea. Cheongmae Zen-master is an important meaning of Buddhist Zen poetry realm in the Chinese literature contents in the study range geographical southeastern part of Korea. Damyang's Jirisan Yeongoksa(鷲谷寺)·Yeongwonsa(靈源寺) and so on, temples which he practiced and gained realization as he went and came often the Odoryeong(悟道嶺). That Zen poem is Sipigaksi(「十二覺詩」) is recited[吟誦] by people of all sorts and conditions who go and come often the Odoryeong in Jirisan right now. This means to clear the poem covers the important a vein of the southeastern part of Korea of Chinese literature heritage. In special, the characteristics quality of Cheongmae Chinese literature, in Zen Buddhism, explains the point one by one about 148 types catechetic questions for meditation in volume 1 The Cheongmae Collection[『青梅集』] in order to instruct his disciples with presented catechetic questions for meditation[公案] and Gochik(古則) by ancient Zen-master and left the Songgo poems.

As the above there was very meaningful consideration by approach through Cheongmae Zen -master who left based on the southeastern part of Korea Zen poetry[禪詩] realm which unites Zen and poetry of the realization of truth and wisdom in the results whether has no loss or gaining and training or realization anymore. I expect to interest in Cheongmae Zen-master[青梅禪

* Associate Prof. of Dept. of Sino-Korean Classics Education in Cheongju Univ.
/ hawoodang@hanmail.net

師] and the southeastern part of Korea area Chinese literature and leave the post consideration.

【Key words】 Cheongmae, Zen-master, Sipigaksi, Yeongoksa, Zen poetry

투고일 : 11월 5일, 심사일 : 11월 22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